

1/4分期

美国 主要石油会社

경영실적

美国的 石油会社들은 油類需要의 감퇴와 가동율저하등으로 經營收支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.

지난 1/4分期中 美国的 16개 主要석유회사의 經常利益은 前年 동기대비 28%가 감소한 48억2천 9백 50만달러에 그쳤다. 특히 利益감소가 두드러진 것은 아람코系(엑슨, 텍사코, 소칼, 모빌)石油会社들로 평균 40%의 이익감소를 나타냈다. 이러한 현상은 아람코系 石油会社들이 사우디 아라비아와의 장기구매계약에 묶여 現物價格보다 비싼 배럴당 34달러의 公示價格으로 原油를 도입, 경쟁기반이 약화된데다 유럽시장에서의 경영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다.

그 중에서 사정이 가장 심각한 것은 소칼로 전년동기에 비해 무려 64%의 利益감소를 보였다. 이와 같은 經營收支의 악화는 주로 판매부진 때문이다. 49%의 이익감소를 나타낸 모빌은 재고누증과 石油化学부문에서의 이익축소 외에 몽고메리워드의 赤字누증이 그 주요인으로 알려지고 있다. 텍사코는 전년동기대비 44%의 利益감소를 보였는데 이는 해외판매부문에서 1억달러이상의 결손을 냈기 때문이다.

美国 최대의 石油会社인 엑슨은 사정이 다소 유리하지만, 지난 1/4분기중에 22%의 이익감소를 보였다. 이는 국내의 상류부문의 이익축소와 해외정제및 판매량의 감소때문이다.

이 밖에 국내에 활동무대를 갖고 있는 기타 石油会社들은 인디애너 스탠다드의 25% 增益으로

부터 아메라다 헤스의 赤字에 이르기까지 그 실적이 다양하다. 인디애너 스탠다드와 같은 石油会社들이 국내정유및 판매부문에서 많은 이익을 올린 것은 값싼 原油를 도입한 결과인데 해외부문의 결손과 石油化学시장의 침체로 앞으로의 전망은 반드시 밝은 것은 아니다. *

1/4分期 美国 主要石油会社 經營실적

(단위: 100만달러)

	1981	1982	增減率(%)
엑슨	1,600.0	1,240.0	-22
걸프오일	303.0	267.0	-12
모빌	640.0	326.0	-49
소칼	666.0	230.0	-64
텍사코	658.0	367.0	-44
小計	3,867.0	2,430.0	-37
아메라다 헤스	174.5	(-16.2)	-
어틀랜틱 리치필드	368.3	385.4	+5
시티즈 서비스	57.7	53.3	-7
게티오일	230.2	163.9	-29
옥시덴탈 피트롤리엄	255.5	62.1	-76
필립스 피트롤리엄	270.8	188.8	-30
셀오일	361.0	345.0	-4
스탠다드 오일(인디애너)	376.7	470.0	+25
스탠다드 오일(오하이오)	520.4	454.7	-13
선	120.0	124.0	+3
유니온 오일 오브 캘리포니아	154.5	168.5	+9
小計	2,889.6	2,399.5	-17
합계	6,756.6	4,829.5	-28

資料: Petroleum Economist June 1982